

3·1절 100주년 앞두고 '독립운동' 서적 봇물

소설 '대한독립만세' '독립운동가...' '기미년 태극기 특공대'
인문·연구서 '만세열전' '파리의 독립운동가...' 등 숨은 주역 조명
광주 만세운동 다른 소설 '피로 새겨진 이름, 윤혈녀' 눈길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다. 독립을 위해 희생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들의 숭고한 뜻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

(‘피로 새겨진 이름, 윤혈녀’ 중) 이밖에 책에는 제주도 조천에서 벌어진 만세운동을 다룬 ‘열다섯, 흥련’ (신여량), 경기도 용인의 만세운동인 ‘봄바람 스키는 남바위를 쓰고’ (이상권), 통영의 이야기를 형상화한 ‘통영의 꽃, 국희’ (박경희), 강원도 흥천의 항일운동 이야기 ‘끝나지 않는 아침’ (윤혜숙)의 소설이 수록돼 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독립운동을 다룬 청소년소설과 다양한 인문서·연구서가 발간돼 눈길을 끈다.

‘독립운동가가 된 고딩’ (초록서재)은 이진미 작가가 쓴 광주학생독립운동을 모티브로 했다. 남 부러울 것 없는 태웅이는 어느 날 체험학습이라는 장치를 통해 일제 강점기 경성 한복판으로 가게 된다. 과거 속으로 뛰어 들어가 당대 사람들과 함께 그 시대를 몸으로 체험하며 당시 열일곱, 열여덟 살 학생들이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던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한 줄도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보통 영웅들’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특히 독립선언서를 인쇄하고 지방에 전달하는 임무를 맡았던 보성사 사무원 인종익과 독립선언서와 ‘조선독립신문’을 민가에 배포하고 만세시위에 참여한 혐의로 열아홉 살 나이에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배제고보 2학년 김동혁은 책에서 처음 다루어진 인물이다.

과 임시정부’ (두레)는 왜 3·1운동이 아니고 3·1 혁명인지를 주장한다.

“국권을 빼앗긴 뒤 한민족은 해방투쟁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만큼 다양한 전략·전술을 동원하여 국권회복투쟁을 전개했다. 그것이 3·1 혁명으로 집약되면서 민족적 에너지가 폭발했다. 국치 9년만에 폭발한 3·1 혁명은 일제 식민통치를 거부한 민족의 자주독립선언임과 더불어 봉건군주체제를 종식하고 민주공화주의를 지향하는 근대의 햇불이었다.”

출판사 서해문집은 청소년문학 여섯 번째 시리즈로, 청소년소설 작가 다섯 명의 작품이 담긴 소설집 ‘대한 독립 만세’를 출간했다. 1919년 3월 1일부터 5월까지 전국에서 일어난 3·1운동 이야기를 소설 형태로 엮었다. 정명성, 신여량, 이상권, 박경희, 윤혜숙 작가가 의기투합해 발간한 결과물이다.

이규희가 쓴 ‘기미년 태극기 특공대’ (꿈터)는 1919년 3월 1일 수많은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뛰쳐나왔을 때 과연 그 태극기가 어디에서 왔을까라는 의문이 단초가 됐다. 일본 순사들이 태극기를 빼앗아가는 것에 분노한 도철이는 할아버지와 태극기 목판을 만들기로 결심하고 실행한다는 내용이다.

“이 책은 3·1운동 시기 독립과 자유를 위해 거침없이 자신의 삶을 던졌던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중략) 그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소중함을 희생했지만 역사책에는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 이 책의 첫 번째 목표는 그들의 삶을 역사로 복원하는 것이다.”

유럽 무대에서 외교로 조선평독립을 알렸던 독립운동가를 조명하는 책도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정성천 처자의 ‘파리의 독립운동가 서영해’ (산지니)에는 임시정부의 공식적인 유럽 외교관이면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알렸던 서영해의 삶이 녹아 있다.

정 작가는 당시 수피아여자학교와 송일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주도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이어진 역사의 현장

을 담았다. 소설은 실존 인물인 수피아여자학교 학생 윤형숙과 최수향, 교사인 박애순과 진신애를 중심으로 만세운동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소설의 주인공인 윤형숙이 만세운동에 참여했다가 일본 헌병이 휘두른 칼에 한쪽 팔을 잃고 ‘혈녀’라는 별명을 얻게 된 이야기는 당시 일제의 탄압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준다.

한편 소설이 아닌 인문서와 연구서로 만세운동을 다각도로 들여다본 책들도 있다. 3·1운동의 기획자들, 전달자들, 실행자들을 토대로 엮어낸 조한성 민족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의 ‘만세열전’ (생각정원)은 숨은 주역들을 조명한다. 저자는 역사책에

가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광주에서 일어난 만세운동을 다룬 정명성 작가의 ‘피로 새겨진 이름, 윤혈녀’이다.

“순사 보초원에게 끌려 나가던 윤형숙이 외쳤다. “조선 독립 만세! 일본은 물러나라!” 고개를 절레절레 저는 일본 순사는 자리에 앉아서 심문 보고서를 작성했다.”

통일 염원하는 실향민의 마음 시인의 눈으로 노래

손광은 시인 9번째 시집 ‘철마는 달리고 싶다’ 펴내

“최근 임진각 망배단(望拜壇)을 다녀왔다. 지구상에서 우리 민족만이 겪는 분단 현실속에서 실향민들의 염원에 평화의 꿈과 고향 이야기와 애끓는 슬픔과 함께 이야기법칙 술법적으로 같이 읊었다.”

황을 절박한 염원에 담아 형상화하기도 했다.

이번 시집에는 통일을 염원하는 실향민의 마음을 시인의 눈으로 꿰뚫어 보는 현실인식의 시와 지역의 역사와 문화, 예술 등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담겨 있다. 특히 북에 고향을 두고 떠나온 실향민들의 심사를 담은 시들이 눈길을 끈다.



철마여/ 절망하고 주저앉은 철마여/ 불면을 앓고 통곡하는 철마여...”(‘鐵馬는 달리고 싶다’ 중에서) 표제시 ‘鐵馬는 달리고 싶다’에는 고향

을 떠난 이들의 절박한 심사가 투영돼 있다. 고향에 갈 수 없는 실향민들의 애절함이 특유의 서정적인 언어와 리듬감으로 표현돼 있어 울림을 준다. 시인은 망배단 돌병풍 속에 새겨 있는 고향을 보고 가슴에 새기며 울부짖는 실향민들을 직접 만나고 작품을 썼다.

손 시인은 발문에서 “내 시가 걸어온 길은 내 삶의 길이였다. 극히 순간적인 감정 이면서 내 전체의 삶을 닮아 보이면서도 내 영혼의 영원한 무엇을 찾는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내 삶이 흐름 속에서 시대적 삶의 정수를 찾기도 하고, 인간 영혼의 보편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문단에 데뷔한지 56년째를 맞은 손광은 시인(전남대 국문과 명예교수)이 9번째 시집 ‘철마는 달리고 싶다’ (한림)를 펴냈다. 지금까지 시인은 자유로운 서정의 삶을 자유발상법으로 노래하기도 하고 시대적 상

서남권 영상위원회 준비모임 목포서 열려

목포·무안·신안·영암·해남·완도·진도·강진·장흥·영광 시민들이 전남 서남권 영상위원회와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해 나섰다. 서남권영상발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목포시 무안동 시네마라운지MM에서 ‘서남권 영상위원회와 미디어센터를 준비하는 시민모임’을 열었다.

정성우 씨네로드 대표는 “이 모임은 앞으로 영상위원회와 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시민들과 만나는 자리를 가질 것”이라며 “지역의 영상 제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무부처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서남권 영화제작자·문화예술 종사자 등 30여 명이 참여하는 이 모임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 지역의 다양한 유형의 영상 콘텐츠를 발굴하

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한편 정 대표와 전남도·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 의원들은 지난달 18일 전남도의회 회의실에서 서남권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의원 간담회를 열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월요콘서트’ 참여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 모집

광주문화재단이 매주 월요일 빛고를 시민문화관 아트스페이스 소공연장에서 공연하는 ‘월요콘서트’에 참여할 클래식 전문 연주단체를 모집한다.

▲홍보물 제작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광주지역 활동 예술단체(팀원 4명 이상)로 60분 이내 소공연장에 적합한 공연이 가능하며 장르를 클래식(바로크 시대 음악으로만 프로그램 구성)으로 제한한다.

올해 월요콘서트는 클래식으로 차별화된 무대를 위해 바로크 음악을 집중 공연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오는 4월 15일부터 11월 4일까지(휴가철·하절기 7, 8월 제외) 매주 월요일 총 20회 공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희망단체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광주문화재단(www.gjcf.or.kr) 혹은 빛고을시민문화관(bitculture.gjcf.or.kr)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접수(gjcf338@naver.com)하면 된다. 선정 단체는 오는 3월 8일 광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된다. 문의 062-670-7943.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화재단은 이번 공모를 통해 재단 자체 기획공연 3회를 제외한 17개 공연팀을 선정한다. 선정된 공연팀에게는 ▲출연료 150만원 ▲공연장 및 부대시설 지원(조명, 음향 장비 등) ▲공연 안내 보조인력

서은 문명란문학연구소 문예창작반 등 수강생 모집

서은 문명란문학연구소가 2019년 상반기 문예창작반과 시낭송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오는 3월 5일부터 7월 23일까지 광주·18교육관 대강당(상무지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옆)에서 열린다.

아름다운 대화를 위하여” 등의 주제 강의를 비롯해 다양한 강의를 펼친다. 시낭송반(매주 화요일 오후 4시~7시)은 박진찬 강사가 맡아 이론과 실기 위주의 수업을 할 계획이다.

문예창작반(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의 강사는 조선의 시인이 맡는다. 조 시인은 김남중문학상, 신석정문학상 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당신 반칙이야’, ‘어쩌면 쓰라린 날은 꽃피는 순간이다’를 펴냈다. 조 시인은 ‘생명의 시·존재의 울림, 그

한편 서은문학연구소는 고(故) 문명란 시인(1934~2015)이 조선대에서 퇴임한 이후 만든 연구소로 시작작과 연구, 학술활동을 전개해온 문인단체로 문명란 시인을 기리는 추모기념사업과 5·18정신 선양에 앞장서고 있다. 문의 010-3609-7576, 010-3620-2448.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그린알로에

GREEN GOONG PRIME EVER 120

그린궁 홈 프라임에버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홈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